



아픈 치아가 모두 발치의 대상은 아니다. 치과진료의 마지막 단계인 발치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고름이 있는 치아를 고치는 근관치료,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시키는 철사감기는 숙련된 치과 의료인이 필요하다.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숙련된 치과 의료인이 시술할 때까지 돌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때에만 발치한다.

- 언제나 아프다. (아프기 시작하면 밤에도 잠을 못잔다.)
- 치아를 움직였을 때 느슨해지고 아프다.
- 치근이 부러졌거나(90도) 신경이 노출되면서 윗부분이 부러졌다.

책에서 이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발치하는 법을 보여주고 실습하는 것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숙련된 치과 의료인을 찾아본다.

시작하기 전 질문한다

발치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예상되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 살이 찢어졌을 때 피가 많이 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발치할 때 피가 많이 나올 것이다.
- 다리가 부어있거나 숨 쉬는 일이 힘들지 않은가? 심장질환이 있을지도 모른다.
-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가? 발치한 후 먹는 약에 대하여 과민반응할 수 있다.
- 당뇨병이 있는가? 그렇다면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환자가 이런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네 가지 문제

- **피가 많이 나는 사람**은 지혈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155쪽). 잇몸이 단단히 붙어있기 원하면 붕합할 수 있다.
-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가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못하게 하는 항응고제 약을 먹는다.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물어본다. 헤파린은 항응고제의 일종이다. 심장약으로서 강심제는 항응고제가 아니다. 먹고있는 약이 항응고제가 아니면 발치해도 좋다. 그러나 **2카트리지(3.6cc) 이상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제 안에 있는 에피네프린은 약한 심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131쪽).
-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 페니실린, 에리스로마이신 등의 약제에 과민반응을 보인다. 어떤 약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다른 약을 처방한다.
- **당뇨환자의 상처는 곪을 수 있다.** 발치한 자리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곪기 시작하면 항생제를 처방한다.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고 신중하게

- 천천히 국소마취를 하고 마취가 되면 발치한다. 그러나 환자가 여전히 아프다고 말하면 마취가 안 된 것이다. 다시 주사한다.
-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기구를 사용한다. 주의하면 치아가 부러지지 않는다. 유치를 뽑을 때 그 아래에서 자라나는 새 영구치가 다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환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치할 때 누르는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환자의 팔을 눌러서 그 느낌이 어떤지 시범을 보인다. 발치를 하고 난 후 상처가 아물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준다.

필요한 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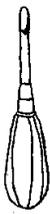
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입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몇 가지는 꼭 필요하다. 149쪽 위에 있는 네 개의 기본적인 기구로 치아를 뽑을 수 있다.

주문할 때는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기구 회사는 기구를 표시하는 데에 번호를 사용하지만 회사마다 번호가 다르다. 다음에 있는 번호와 정식 이름을 사용해서 주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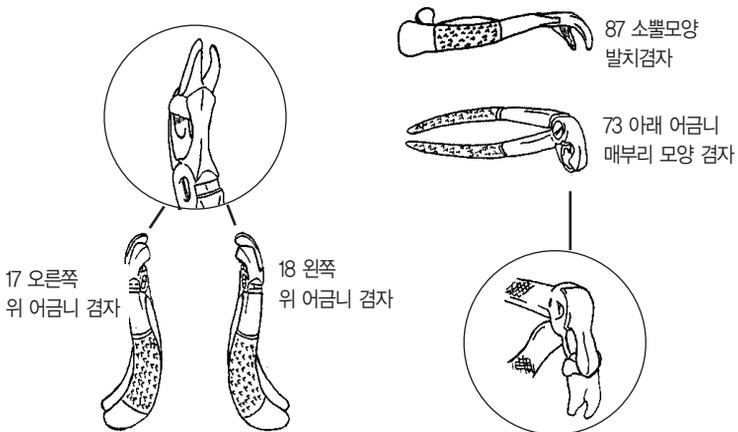
* 이 장에 있는 모든 기구는 아래 주소를 통해 싸게 구할 수 있다.
ECHO, 4 West Street, Ewell Surrey KT 17, 1UL, England (173쪽)

네 가지 기본적인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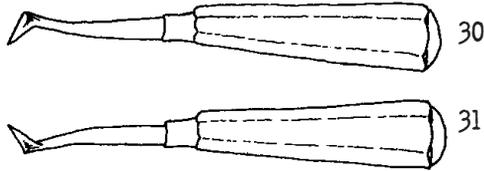
대부분의 치아는 다음 네 가지 기구로 뽑을 수 있다.

<p>스푼, 또는 탐침</p>  <p>이 기구는 치아에서 잇몸을 분리할 때 사용한다.</p>	<p>발치기자</p>  <p>치아를 느슨하게 하거나 부러진 치근을 들어올리는데 쓰인다.</p>	<p>발치 겸자 2개</p>  <p>150 윗니 일반 겸자</p> <p>75 아랫니 소구치 겸자</p> <p>치아를 잡아당길 때 쓴다. 한 개는 윗니 다른 한개는 아랫니에 사용한다.</p>
--	---	--

뿌리가 깊은 어금니를 뽑는 데는 다른 발치겸자가 필요하다. 이런 겸자는 어금니의 치근 사이에 들어가 맞도록 만들어진 뾰족한 부리가 있다. 따라서 큰 치아를 더 잘 잡을 수 있다.



구부러진 발치기자는 부러진 뿌리를 제거할 때 쓴다. 날카로운 끝을 치근과 뼈 사이로 쉽게 밀어 넣을 수 있다.



발치기자

발치겸자와 발치기자는 값이 비싸다. 네 가지 기본적인 기구보다 더 많이 주문하려면(149쪽) 비용을 생각한다.

치료장소가 중요하다

햇빛이나 조명이 밝은 곳에서만 치료해야 한다.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입안을 비추려면 치경을 사용한다(139쪽).

환자의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등이 달린 의자를 사용한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서서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아랫니 발치시

아래로 누른 다음 위로 뽑는다.
따라서 환자는 낮게 앉아야 한다.



상자 위에 서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윗니 발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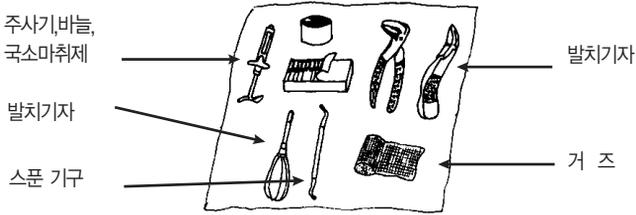
위로 누른 다음 아래로 잡아당긴다.
따라서 환자는 높게 앉아야 한다.



환자를 쿠션 위에 앉게 한다.

발치하는 법

어떤 치아를 뽑아야 하는지 결정했으면 필요한 기구를 정리한다. 깨끗한 천 위에 미리 펼쳐 놓는다.



기구에 손대기 전에 손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또한 기구도 깨끗한지 확인한다(82-85쪽). **감염방지! 청결유지!**

발치할 때 다음 8단계를 따른다. (151-158쪽)

1. 무엇을 하려는지를 설명한다.
2. 국소마취제를 주사한다.
3. 치아와 잇몸을 분리한다.
4. 치아를 느슨하게 한다.
5. 치아를 뽑는다.
6. 지혈시킨다.
7. 상처치유를 위해 집에서 할 일을 설명한다.
8. 발치아 대신 인공치아를 장착하도록 도와준다.

1.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한다. 발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몇 개의 치아를 뽑는지 말한다.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때 치료를 시작한다.

2. 국소 마취제를 주사한다. 아랫니에 주사하는 것과 윗니에 주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

마취가 될 때까지 5분간 기다린다. 그리고 치아가 마취되었는지 검사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시작하기 전에 여전히 아프다고 하면 다시 마취 주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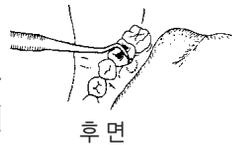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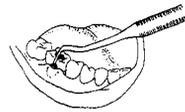
3. 치아와 잇몸을 분리한다. 치은낭 안에서 잇몸은 치아에 붙어 있다. 발치하기 전에 잇몸과 치아를 분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치시 잇몸이 찢어진다. 찢어진 잇몸은 피가 더 많이 나고 낮은 데에도 오래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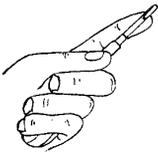
기구 끝이 치아면을 따라 미끄러지게 해서 치은낭 안으로 들어간다. 가장 깊은 곳에서 잇몸이 치아와 붙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부착 부위와 치아 사이의 틈으로 기구를 밀어 넣고 기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잇몸에서 치아를 분리시킨다.

볼 쪽(바깥쪽)과 혀 쪽(안쪽) 양쪽에서 행한다. **부착 잇몸은 매우 강하지만 얇다. 기구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치아와 부착되어 있는 부위만을 잘라내도록 해야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4. 치아를 느슨하게 한다. 느슨해진 치아는 발치시 잘 부러지지 않는다. 강한 치아를 뽑을 때는 언제나 곧은 발치기자로 먼저 치아를 느슨하게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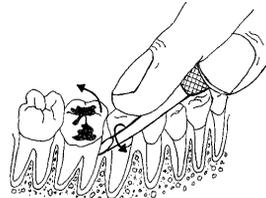


주의: 곧은 발치기자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득보다 해가 많다.

곧은 발치기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손잡이를 돌릴 때 첫 번째 손가락을 옆 치아에 갖다댄다. 이렇게 하면 조절이 된다. 날카로운 날이 미끄러져서 잇몸이나 혀를 다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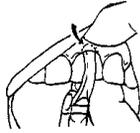
빼낼 치아와 그 앞에 있는 정상 치아 사이에 날을 넣는다. 날의 오목한 면을 제거하려는 치아에 댈다.

잇몸 아래쪽으로 가능한 한 깊이 치면을 따라 밀어 넣는다. 그 치아가 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손잡이를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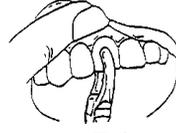


뼈에 압력을 가한다. 그 옆에 있는 치아에 압력을 가해서 건강한 치아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5. **치아를 뽑는다.** 발치검자를 가능한 한 깊이 밀어 넣는다. 검자의 부리는 잇몸 아래 치근 위를 잡고 있어야 한다.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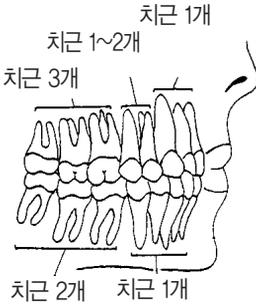
틀림

다른 손으로는 치아 주위의 뼈를 잡는다. 치아가 빠지려고 하면 뼈가 약간 늘어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다. 연습을 하면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치아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려면 치근 갯수를 생각해야 한다.

치근이 1개면 돌리면 된다.



2개나 3개의 치근을 가지면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여유를 가진다. 서둘러서 발치검자를 너무 세게 쥐면 치아가 부러진다.

치아를 뽑는 것은 땅에 박힌
기둥을 뽑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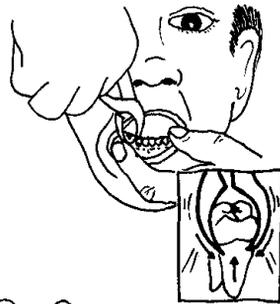


조금씩 앞 뒤로 흔들면
느슨해져서 쉽게
빠져 나온다.



아랫 어금니를 ‘소뿔모양’ 겸자로 뽑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잇몸 아래에서 치근 사이의 한점에 맞춘다.

손잡이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고 또
옆으로도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겸자가
치근 사이로 더 깊이 들어가 치아가
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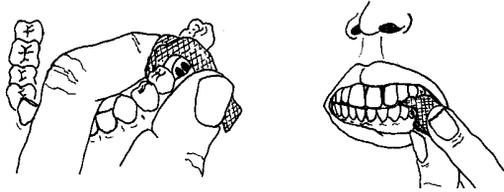
어떤 아랫니는 혀쪽으로 나온다.

**주의: 유치를 뺄 때 ‘소뿔모양’ 겸자
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아래서 자라
는 영구치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치아가 나오면 뿌리가 부러져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살핀다.
가능하다면, 부러진 뿌리는 뼈 안에서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6. **지혈시킨 다음 발치와**(발치하고 난 다음 생기는 구멍)를 짜내듯이 양옆에서 눌러준다. 거즈로 발치와를 덮고 30분 정도 꼭 물고 있으라고 지시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2시간 동안 거즈를 물게 한다(136쪽).



잇몸이 느슨해지면 조여준다. 지혈과 상처 치유를 위해 잇몸을 그 아래에 있는 뼈에 단단히 붙여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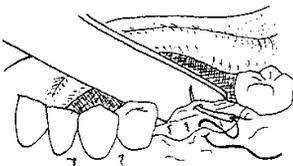
봉합하는 법

윗니와 아랫니 중 두 개 이상의 치아를 뽑았다면 실과 바늘로 잇몸을 **봉합**하는 것이 좋다. 한 군데 이상 봉합할 때는 앞쪽에 가까운 곳을 먼저 하고 뒤쪽으로 간다.

바늘을 단단히 잡아주는 기구(지혈겸자)와 실을 끊어주는 가위가 필요하다.

실과 바늘은 반드시 살균된 것을 사용한다.
20분 동안 꿰어서 살균한다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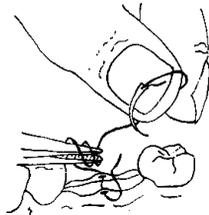
- 느슨한 잇몸에 바늘을 넣어 꿰맨다(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더 단단히 붙어 있는 잇몸을 꿰맨다.



더 느슨한 잇몸이 바깥쪽에 있으면 바늘을 허쪽으로 가져가야 한다. 설압자나 치경으로 허를 보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 아래 잇몸을 봉합한다. 그런 다음 매듭을 짓고 실을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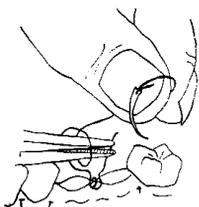
- 시작 지점에 4cm 가량의 실이 남을 때까지 실을 당긴다.

실의 긴 끝을 지혈겸자 부리 주위로 두 번 감는다. 그리고 나서 지혈겸자 끝으로 실의 짧은 끝을 잡는다. 손에 바늘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지혈겸자를 당긴다. 실이 부리에서 미끄러지면서 첫 번째 매듭이 만들어진다.



매듭을 상처의 옆으로 오게 한다(상처 위로 매듭을 매면 안 된다).

- 첫 번째 매듭이 단단해지도록 매듭을 두 번 만든다.



지혈겸자 부리 주위로 실을 한 번 감는다. 이전에 한 것처럼 실의 짧은 끝을 지혈겸자 끝으로 잡는다. 두 끝을 다른 방향으로 당긴다. 두번째 매듭은 첫번째 매듭 위로 만들어진다.

- 0.5cm 정도 남기고 실을 자른다. 끝이 너무 길면 허가 불편하고 너무 짧으면 매듭이 풀린다.

그리고 나서 그 부위를 거즈로 덮는다.
환자에게 말해 준다.

- ① 지혈하기 위해 1시간 정도 거즈를 단단히 물고 있을 것
- ② M 실을 뽑기 위해 1주일 후에 다시 올 것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실이 있다. 이것은 실을 풀기 위해 환자가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매우 비싸다. 그것을 살 여유가 없으면 바느질 실을 사용하고 1주일 후에 실밥을 풀면 된다.

7. 상처치유를 위해 집에서 할 일을 설명한다. 환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고 상처를 낮게 하기 위해 집에서 할 일을 말한다. 입이 마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낄 수가 없다.

발치는 작은 수술이다. 피가 나고 나중에는 붓고 아픈 것이 당연하다. 환자에게 이것을 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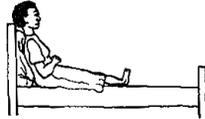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주의시킨다.**

- **한 시간 정도 거즈를 꼭 물고, 그 후에도 피가 나오면 새 거즈를 물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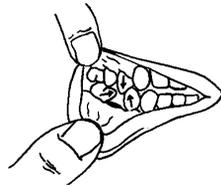
출혈이 다시 시작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솜을 준다. 거즈 사용법을 알려준다.

- **진통제로 아스피린을 먹는다.** 3~4시간 간격으로 먹는다(88쪽).
- **실 때는 머리를 높이 든다.**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출혈이 그치고 아픈 것도 줄어든다.
- **입안을 양치하지 말 것.** 발치 후 소금물로 양치하고 피를 많이 뱉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발치와 안에서 피딱지가 생겨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홍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말 것.** 이것은 출혈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차가운 음료수는 좋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 **음식은 계속 섭취해야** 하지만 연하고 씹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발치한 곳 반대편으로 음식을 먹도록 한다.
- **양치질을 깨끗이 할 것.** 이튿 날부터 양치질을 하고 발치와가 아물 때까지 계속한다. 따뜻한 소금물로 양치하고 발치와 주변의 치아를 특히 잘 닦는다(67-70쪽).



인공치아

발치 후에는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뿌리 주위의 뼈를 약하게 해서 몇 년 후에는 그 치아 역시 느슨해지고 병들어 뽑아야 한다.



인공치아가 도움이 되는 이유

발치는 벽에서 벽돌 하나를 빼내는 것과 같다. 그 발치 주위는 약해지고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치아를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다.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치아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치아가 다 갖추어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치아가
빠지면
늙어보인다.



플라스틱
인공치아로 같은
사람인데도 더
젊어보인다.



이 책에서는 인공치아 만드는 법은 다룰 수가 없다. 다음 책에서 인공치아, 의치, 영구충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원한다(145쪽).

가능하다면 발치 후에 플라스틱 치아로 대체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

어디서 만들고 가격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해준다.

- 나머지 치아들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깨끗이 양치하는 법을 설명해 준다(67-70쪽).
- 플라스틱 치아로 교체하는 것을 설명한다.

예상되는 문제들

환자가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빨리 치과의사에게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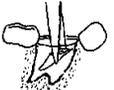
부러진 치근

치근이 보이면 제거한다. 뼈 안에 부러진 치근이 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부러진 윗니 치근 제거하기. 곧은 발치기자를 사용한다. 발치와의 벽을 따라서 부러진 치근과 닿을 때까지 들어간다.

<p>1. 치근과 발치와 사이에 날을 집어넣는다.</p> 	<p>2. 발치와 벽에서 치근을 떨어뜨린다.</p> 
<p>3. 느슨해질 때까지 치근을 더 움직인다.</p> 	<p>4. 느슨해진 치근을 잡고 빼낸다.</p> 

부러진 아랫니 치근 제거하기. 곧은 발치기자를 이용한다. 만곡된 점자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한다. 어금니 치근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치근 옆에 있는 발치와로 날이 들어간다.

<p>1. 치근과 날사이에 있는 뼈를 부숴없앤다.</p> 	<p>2. 치근과 발치와 사이에 날을 밀어넣는다.</p> 
<p>3. 발치와 벽에서 치근을 떨어뜨린다.</p> 	<p>4. 느슨해진 치근을 잡고 빼낸다.</p> 

주의: 발치와 안에 작게 부러진 치근 조각이 있으면 그냥 두는 것이 더 좋다.

약 1주일 후에 저절로 느슨해져서 제거하기가 더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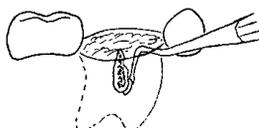
상악동 안으로 밀고 들어간 치근

보이지 않는 윗 치근은 아마 상악동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89쪽).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발치와를 거즈로 덮고 환자를 병원으로 보낸다. 상악동을 열고 치근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한다. 환자에게 코를 풀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공기가 그 틈으로 들어가면서 치유되는 것을 방해한다.

뼈조각과 살점

발치와 내부에 느슨하게 있는 작은 뼈조각은 출혈을 일으키고 치유를 지연시킨다.

발치기자로 발치와 내부에 부드럽게 밀어 넣는다.
뼈조각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들어낸다.



필요하면 국소마취제를 놓는다.

치료가 끝나면 거즈를 물고 피가 멈출 때까지 있으라고 한다.

작은 살점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리게 한다. 핀셋으로 살점을 잡고 살균된 가위로 잘라낸다.

따뜻한 물로 양치하면 잇몸이 단단해지고 치유가 잘된다. 그러나 처음 24시간은 양치하면 안 된다(157쪽).

출혈

첫 번째 거즈가 지혈시키지 못했다면 거즈를 더 갖다댄다. 피가 멎는지 살펴보기 위해 5분간 기다린다. 이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되면 155-156쪽에 있는 것처럼 꺾매준다.

부종

찬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댄다. 이것은 부종을 방지한다. 발치가 어려웠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미 부종이 있으면 얼굴을 **따뜻하게** 해서 부종을 가라앉힌다. 더운물을 적신 수건을 부어오른 부위에 대고 30분간 찜질하고 30분은 쉬도록 한다.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게 조심한다.**

큰 부종은 염증이 있다는 증거다.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하다(110쪽).

발치와의 통증

발치 후 하루동안 또는 그 후에도 계속 발치와 부위가 아플 수 있다.
아스피린(88쪽)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며칠동안 심하고 지속적으로 아프면 발치와 골염(전성 발치와)일 가능성이 있다. 처치는 111쪽에 있다.

빠진 턱

발치하면서 환자의 턱을 누르게 되면 가끔 턱을 탈구시킬 수도 있다.
턱이 제자리에서 밀려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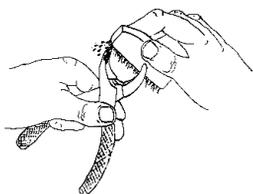
탈구된 턱에 대한 처치는 107쪽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환자에게 꼭 할 말 :

“증세가 더 심각해지면 즉시 오십시오.”

치료 후 기구청소

기구가 더러우면 파상풍(112쪽)이나 간염을 옮기는 세균이 있을 수 있다. 더러운 기구에 묻은 세균은 발치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시킨다. 치과기구는 깨끗하게 살균되어야 한다. 다시 사용하기 전에 닦고 끓인다(82-85쪽).



솔에 비누를 묻혀 기구를 깨끗이 닦는다. 오래돼서 말라붙은 피자국도 모두 닦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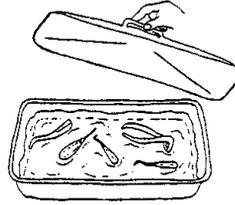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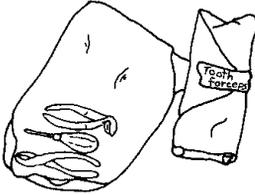


뚜껑이 있는 솔에 넣고 20분 동안 끓여서 살균한다.

살균된 기구를 깨끗한 곳에 같이 모아둔다.

깨끗한 천으로 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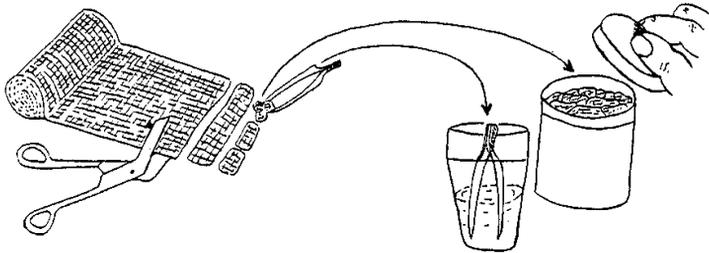
또는 소독약에 넣어둔다(85쪽).



기구에 이름을 붙인다.

기구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 소독약의
냄새를 없앤다.

더러운 숨 안에 사는 세균은 발치와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숨 조각을 깨끗하고 뚜껑이 있는 함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할 때 소독한 핀셋을 사용하여 거즈를 꺼낸다.



또한 치료실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닥은 매일 청소하고 의자와 책상도 가능한 자주 닦는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다.